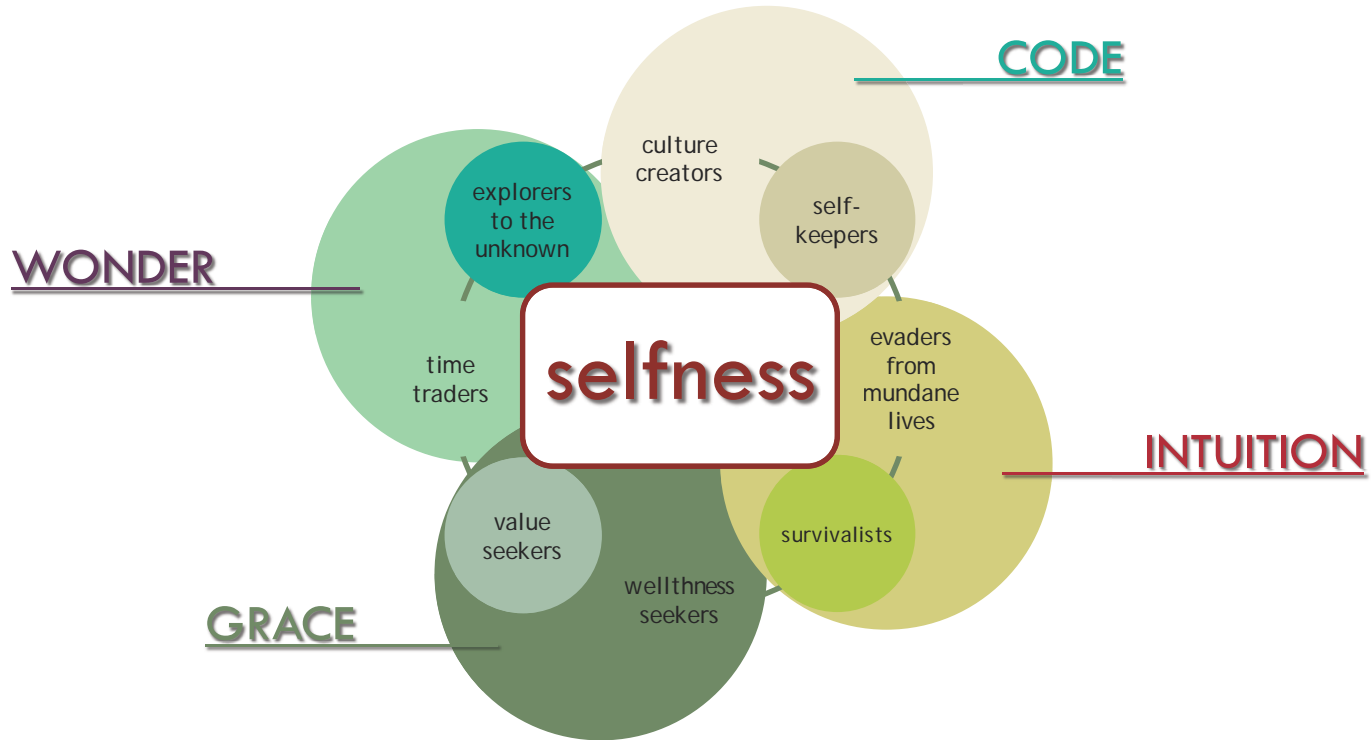


# Color Theme IV \_ WONDER

공상과학 소설과 유토피아를 꿈꾸는 상상의 세계





## selfness

자기다움, 나를 바라보다

모험과 투자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다움

나만의 취향

나만의 가치

나만의 고급스러움

2016년 Fall과 Winter 시즌에는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있지만 또 그렇지 만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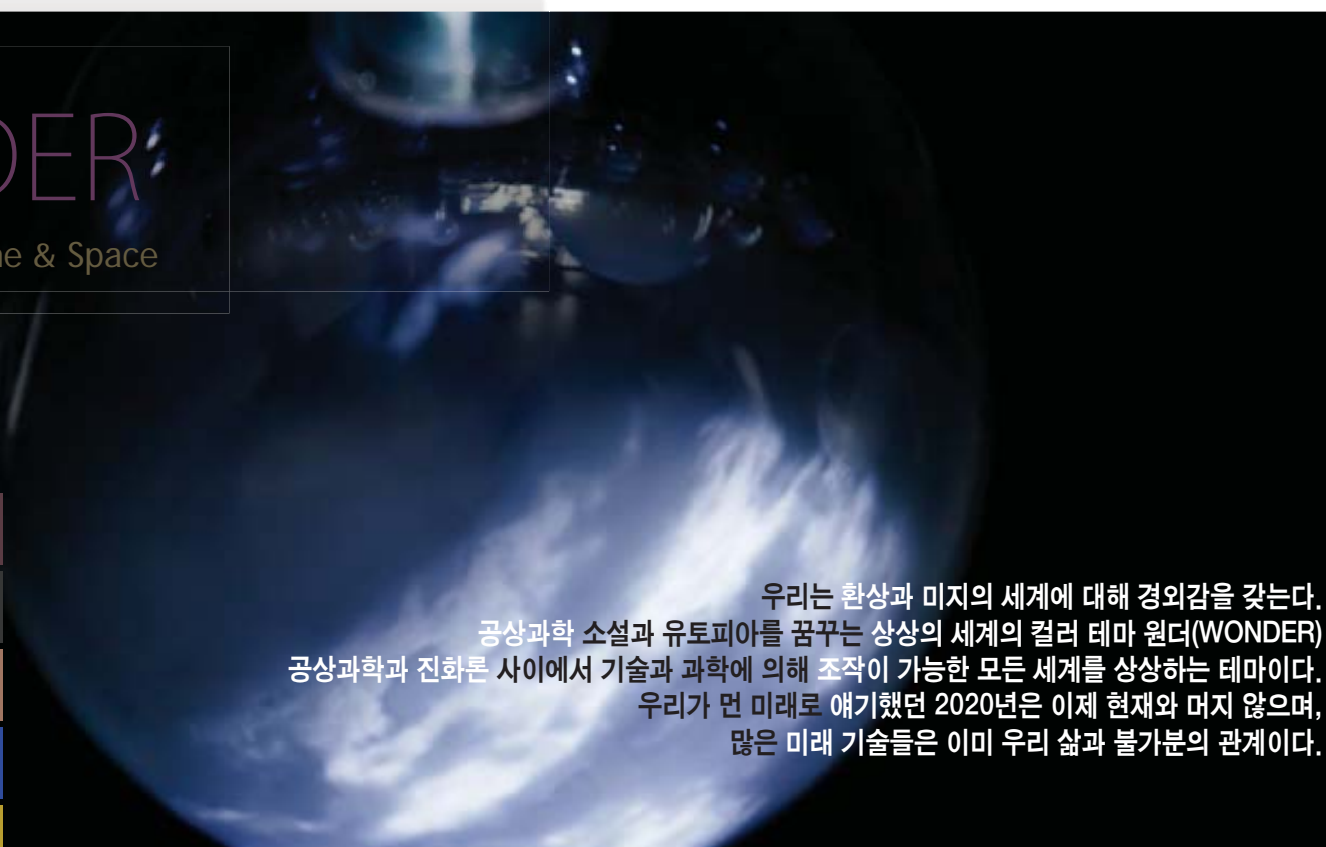
나를 깊이 바라보고 나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우리 각각의 개인은 독특하고 살아있는 새로운 실험의 장이 된다.

'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칫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처럼 개인을 들여다보고 개인의 영역에서 문제점을 찾음으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감각을 갖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 WONDER

Traveling beyond Time & Space



우리는 환상과 미지의 세계에 대해 경외감을 갖는다.  
 공상과학 소설과 유토피아를 꿈꾸는 상상의 세계의 컬러 테마 원더(WONDER)  
 공상과학과 진화론 사이에서 기술과 과학에 의해 조작이 가능한 모든 세계를 상상하는 테마이다.  
 우리가 먼 미래로 얘기했던 2020년은 이제 현재와 머지 않으며,  
 많은 미래 기술들은 이미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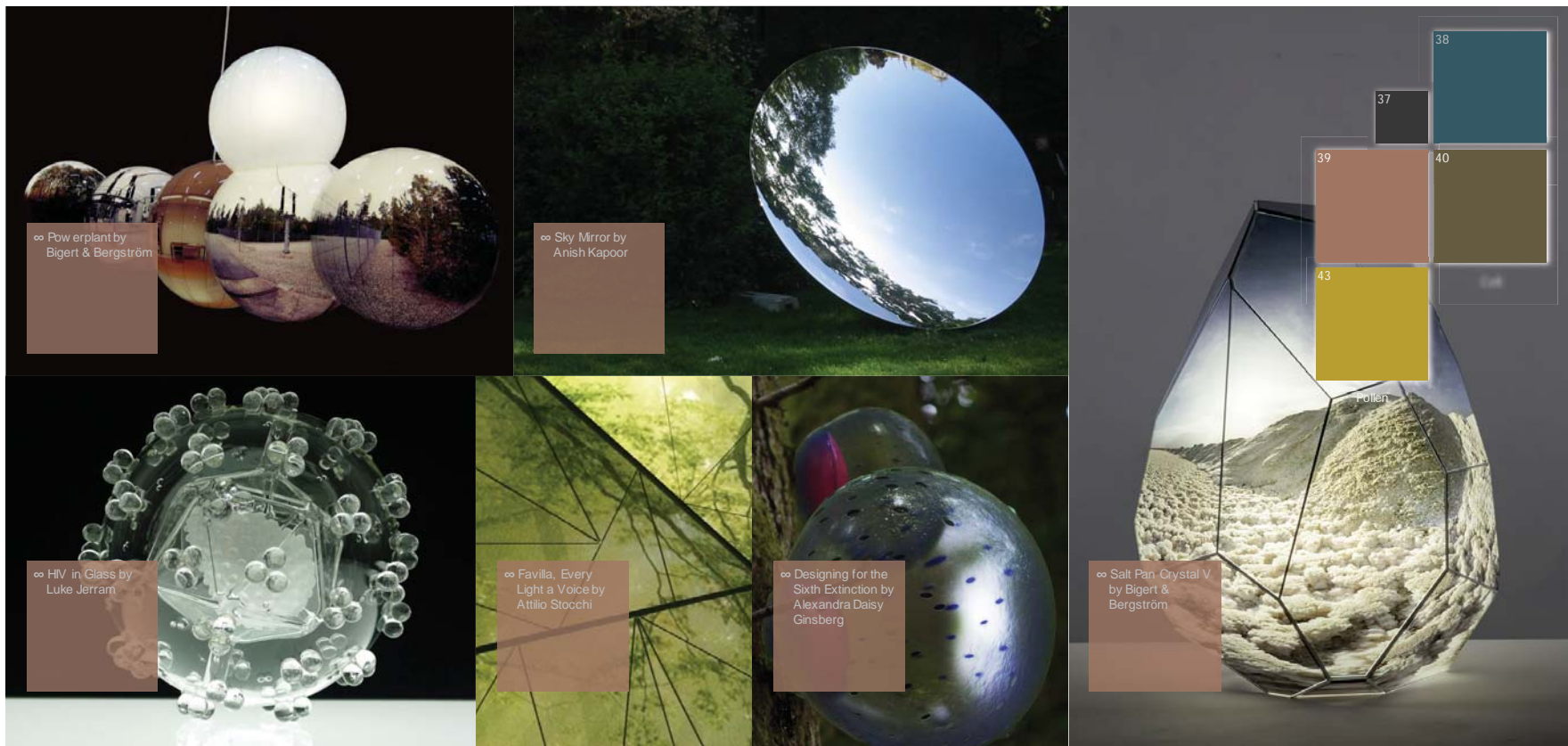
|    |    |
|----|----|
| 34 | 35 |
| 36 | 37 |
| 38 | 39 |
| 40 | 41 |
| 42 | 43 |
| 44 |    |



## Colors from Science Fi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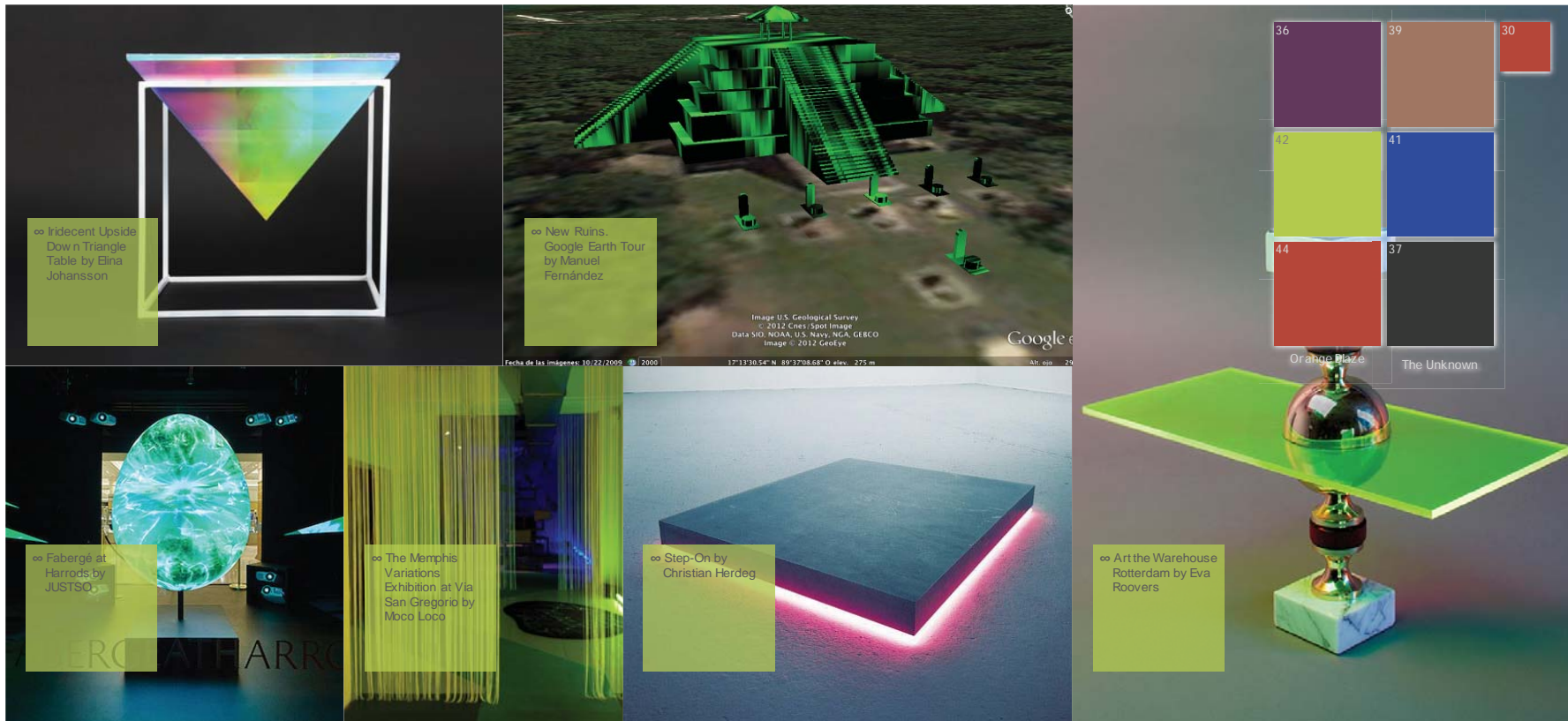
상상의 세계로부터 온 유토피아 컬러

공상과학 소설과 유토피아를 꿈꾸는 상상의 세계로부터 온 컬러들이 제안된다. 과학으로 소생된 식물과 동물을 표현하는 브라이트 그린(bright green)과 오렌지(orange)가 제안되며 미지의 깊은 곳의 어둡고 다채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다크(dark)한 그룹들이 제안된다.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한 감성에 브라이트 블루(bright blue)가 희망과 긍정의 빛을 표현하며 포인트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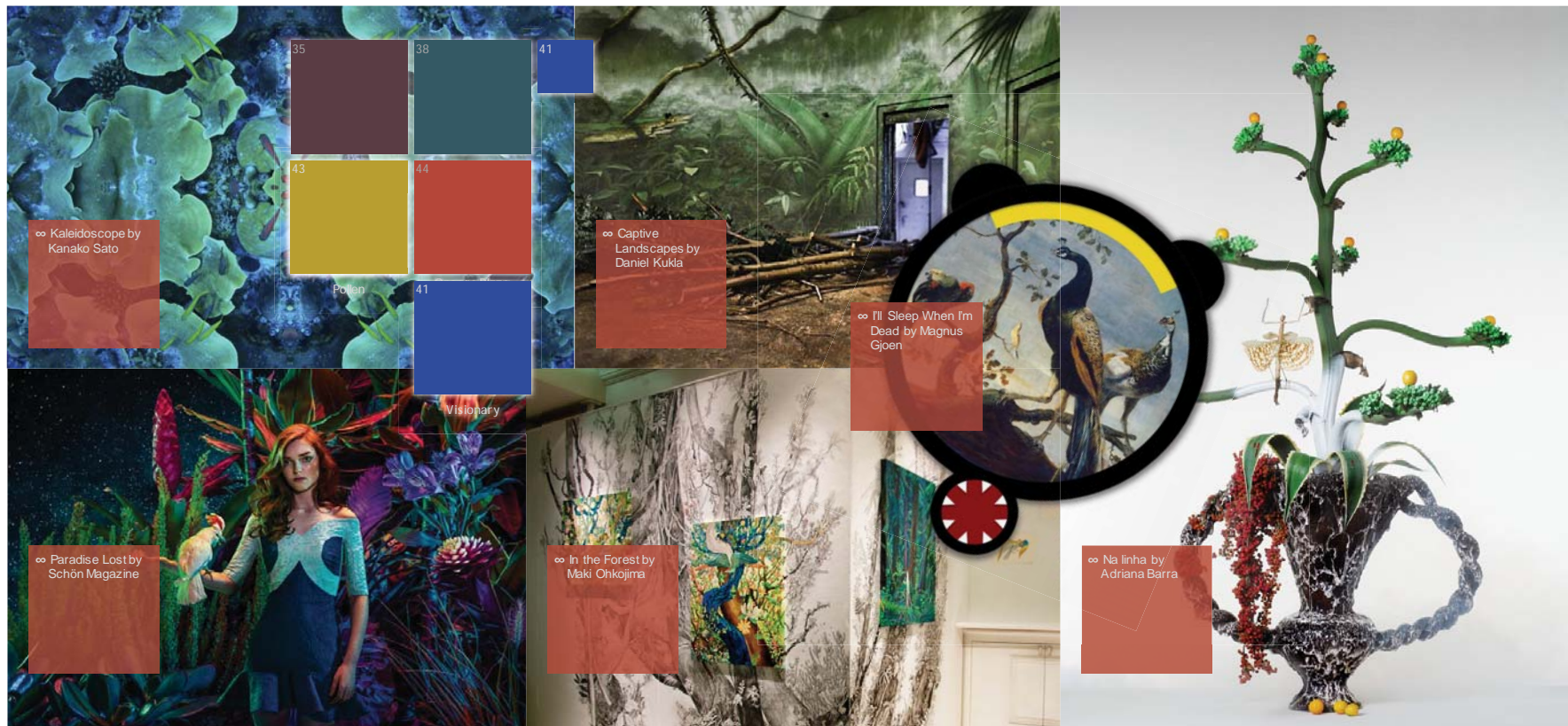
**transfigure**  
변형시키는

WONDER의 첫 번째 컬러 테마에서는 기술과 자연이 서로 중첩되면서 서로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서로를 상승 시킴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연과 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것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면서 서로를 자연스럽게 동기화 시킨다. 자연과 인공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동기화 시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기술을 표현하는 페트롤(petrol), 폴른(pollen)이 제안되고 여기에 자연을 표현하는 뉴트럴(neutral)들이 제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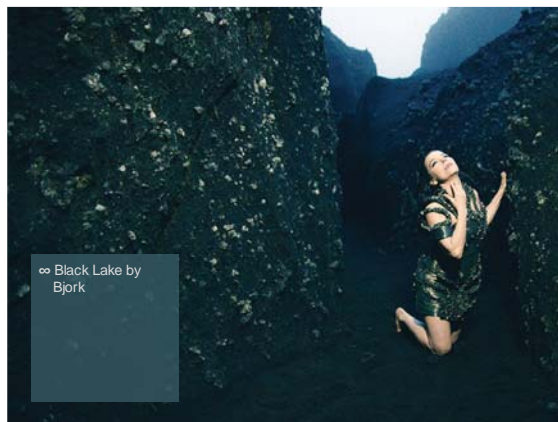
**immersive world**  
가상세계

가상세계를 통해 바라본 세상, 혹은 VR(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우리가 상상하는 가상 세계들을 표현한다. 다크(dark)와 브라이트(bright)의 대비를 통해 강하고 스포티브(sportive)한 느낌을 제안한다. 다크 그룹은 와인(wine), 블랙(black) 등이 있으며, 이에 대조되는 브라이트 그룹에는 오렌지(orange), 탁식 그린(toxic green), 브라이트 블루(bright blue) 등이 함께 제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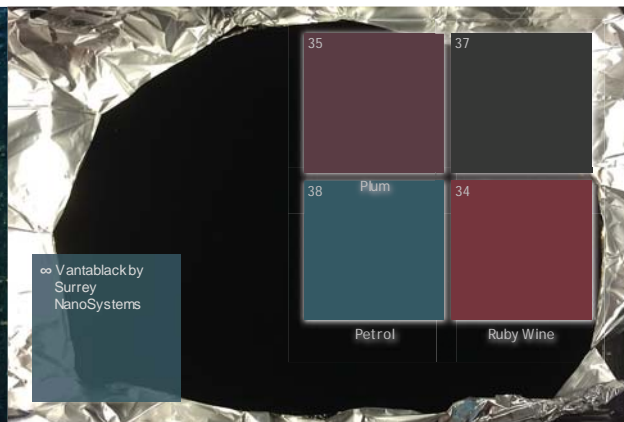


**fantasia**  
판타지아

세 번째 테마에서는 기술적 혹은 예술적인 혁신에 의해 최적화된 동 식물의 세계를 표현한다. 예술가들과 기술자들은 상상을 통해 돌연변이 환경에서 살아남은 동 식물의 다양한 형태의 출현을 이야기한다. 페트롤 그린(petrol green)과 와인(wine)을 메인 컬러로 사용하며 변형된 동 식물의 형태를 탁식 옐로우(toxic yellow), 오렌지(orange), 블루(blue)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다크 플로럴(floral) 혹은 화려한 컬러의 야생화 프린트, 화려한 다마스크(damask) 패턴은 그래픽(visual)한 기법으로 환상적으로 표현되며, 미래적인 느낌의 플라스틱(plastic) 매테리얼(material)와의 조화를 통해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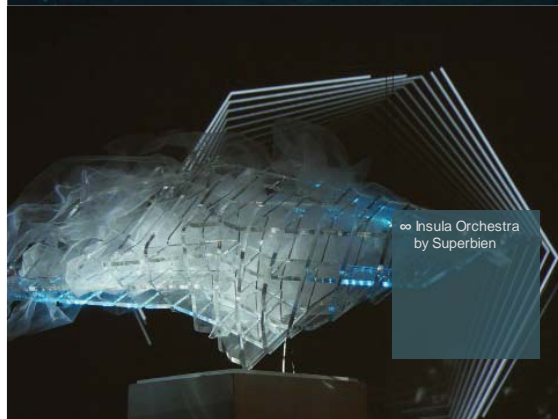
∞ Black Lake by Bjork



∞ Vantablack by Surrey NanoSystems



∞ Untitled Mirror 16 by Sam Orlando Miller



∞ Insula Orchestra by Superbien



∞ Desire of Codes by Seiko Mikami



∞ Caico by Jason Lloyd Fletcher

**disturbing**  
불안감을 주는

WONDER의 마지막 컬러테마에서는 끝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을 표현하는 벤타 블랙(vantablack)에서 온 컬러, 깊이를 알 수 없을 것 같은 테이블, 심연의 어두움, 거기서 느껴지는 불안감 등을 표현하는 디자인들이 제안된다. 컬러는 블랙을 중심으로 다크그룹이 주를 이루며, 모노크롬(monochrome) 레이어(layer)와 연출해서 다크하면서도 미래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 2016 F/W Color Proposal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랜드센터(CFT)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디자인 산업에서 컬러 트렌드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디자인DB(<http://designdb.com/>)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랜드센터 전략기획팀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5, 남도빌딩 5층  
T. 02)549-2362 F. 02)549-4745 H. [www.cft.or.kr](http://www.cft.or.kr)

**(CFT)** (재)한국컬러&패션트랜드센터